

광야에서 받은 복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처럼 좋은 계절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비록 매 순간 닥쳐오는 어려움을 피해 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아픔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25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봄 속에 성장하고, 소년이 되어서는 스승의 가르침 속에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며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셨던 하나님께 가족 모두가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욱 사모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 추석 가정예배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시: 9월 29일(금) 인도: 가족 중에서

묵상기도 다 같이

신앙고백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429장 다 같이

기 도 가 족 중

성경봉독 민수기 6:24~26 인 도 자

말 씀 광야에서 받은 복 인 도 자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본문: 민수기 6장 24~26절

24.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429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통 489)

J. Oatman Jr., 1897
조금 빠르게

모든 신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엡 1:3)

BLESSINGS: 11.11.11.REF.
E. O. Excell, 1897

1.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2.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 고 심자가 등을 치고 나 갈 때
3.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 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 아 라

너를 흔들어 하계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 어 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리 라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 어 라 두렵없이 항상 찬송 하 리 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 하 리 니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 가 라

복을 세어라 네가 알리라

후렴

받은 복을 세어 보 아 라 크신 복을 내가 알 리 라
받은 복을 세어 세어 보아 라 크신 복을 내가 내기 알 리 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 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리 라
주께 받은 복을 모두